

아시아 19개국 '미의 사절단' 광주 온다



지난해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아어워드 페스티벌 장면.

18~21일 아시아미인문화페스티벌

다문화가정 초청 전통춤 공연 마련

5·18, 세계수영대회 홍보대사 역할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말은 보통명사가 된 지 오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는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심점을 마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광주를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 이번에는 미인 문화 사절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페스티벌이 광주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아시아어워드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아시아미인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각국 문화와 다문화 가정 등을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19개국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21명의 미인들이 참가해 아시아어워드당 광장 등

광주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어워드'는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와 함께 세계 3대 미인대회중 하나인 미스 인터콘티넨탈 대회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로,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의 문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18일 광주 도착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아시아 미인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프닝 쇼와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이후 아시아 미인들은 종장로와 아시아문화전당, 구시청지역 음식문화특구를 행진하며 시민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아시아 각국 출신의 다문화가정 30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나누는 '사랑의 밥차'가 예정돼 있다. (새사랑의 밥차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나눔 공동체이다.

특히 아시아 미인들은 광주에 머무는 동안 양립동의 한희원 갤러리, 율희애 문화관과 근대역사문화공간, 대인시장 등을 방문한다. 또한 주요 5·18 유적지 등 광주지역 명소들을 방문해 광주의 문화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시아어워드는 5·18 민주화운동과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등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광주 문화와 먹거리를 아시아에 전파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들은 아시아어워드위원회가 위촉하는 광주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자국에 돌아 가면 광주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역할을 맡게 된다.

아시아 문화 이해와 한국과 광주의 홍보에 공이 많은 아시아인을 선정해 시상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김영준 위원장(21세프로 미디어)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이름 없이 똑같은 가정과 아이들로 불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며 "미인 문화사절을 통해 각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아시아어워드를 개최해 광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중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어워드를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10-8608-0081.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소' 17~18일 문화전당

남북평화를 위한 좌충우돌 '소' 반환 소동을 그린 코믹 우화극 '소'(사진)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18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공연한다.

연극 '소'의 김석만 연출가와 박용수, 최재섭 등의 출연자들은 13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아뜰리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극을 소개했다.

연극 '소'는 1996년 대홍수로 북한에서 소 한 마리가 한강 하류로 떠내려 온 실제 사건을 소재로 운정환 작가와 김석만 연출가가 팽팽한 남북 관계를 풍자와 해학으로 코믹하게 풀어낸 공연이다.

홍수로 떠내려 온 '소'는 오래전 독립군이 해방 후에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을 갖게 하려고 비밀리에 기른 '소'였다는 사실이 남북 고위급 회담, 군사작전, 국제 사법 재판 등을 거쳐 흥미진진하게 드러난다. 농가의 소 한 마리가 한반도의 정치, 군사, 외교 상황에 의도치 않게 등장해 우리 시대의 분단 문제를 재치 있는 '코믹우화극'으로 풀어내게 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연자들이 연극 '소' 중 '제4장 비밀을 지켜라' 부분을 선보였다.

김석만 연출가는 "이 작품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다"며 "나는 극장의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두 번 째는 분단국가 상황을 감안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극은 예술극장 최적화 공연개발 사업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11월 공연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4월에 최종 완성작품을 공연하게 된다. 현재는 제2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 우수한 작품 개발을 위해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소'는 가변형 무대인 ACC 예술극장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로드(Road)형 무대(양쪽 객석이 무대를 사이에 두고 길게 마주보게 되는 형태)에서 공연이 펼쳐져 마치 관객이 극 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연출가는 "코믹 우화극답게 정말 재미있는 연극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특이한 모습의 무대에서 선보이는 만큼 많은 관객들이 와서 새로움과 신선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에 대한 상세정보 및 티켓 예매는 ACC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모차르트의 로맨틱 코미디 '코지 판 투테'

빛소리오페라단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단장 최덕식)이 30번째 정기공연으로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희극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18일 오후 1시·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최덕식 단장이 총감독을, 국립합창단 구전 예술감독이 지휘를, 광주대학교 박미애 교수가 연출을 각각 맡았으며 이번 공연에는 국내 중견 성악가들과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오케스트라, 광주대학교 합창단 등 총 100여 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휘오르달리지 역에 유희민, 장희정, 도라벨라 역에 장은영, 윤희정이, 휘판도역은 이장원, 장호영, 굴리엘모 역은 김재섭, 김대수가 맡았다.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와 더불어 모차르트의 3대 희극 오페라로 손꼽히는 '코지 판 투테'는 이태리어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의미이다. '코지 판 투테'는 젊은 해군장교인 굴리엘모와



소프라노 윤희정 테너 장호영

페판도가 철학자 돈 알폰서의 제안으로 애인의 정조를 시험해보기 위한 내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남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코믹한 해프닝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1999년 창단한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은 그동안 29차례 오페라를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62-227-74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발라드 여왕' 알리, 국악관현악을 만나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16일 공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김광복)이 가수 알리(사진 왼쪽)와 함께 국악관현악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12회 정기연주회 '알리, 국악관현악을 만나다'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선보이기 위해 이번 무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편곡된 곡으로 꾸몄다.

박광신의 진행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우리 민요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을 원곡으로 편곡한 '남도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며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대통령상 수상자인 박지윤 명창이 춘향가를 국악관현악 곡으로 편곡한 '사랑&이별'을 들려준다.

세 번째 무대는 서영무용단이 국가의 경사소리



운 행사 때 연주되는 서곡 '축연무'를 선보인다.

이 밖에도 피리연주곡으로 편곡된 율도 팝송 'Summer Time', 타악기와 태평소가 신명 나게 어울리는 '만물음II', 몽골인의 문화·생활방식·정신을 표현한 '아름다운 몽골' 등을 웅장한 국악관현악 연주로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무대는 가수



알리와 국악관현악의 협연이다. 알리는 TV프로그램 '블루의 명곡'에 출연해 빼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가수다. 알리는 이날 자신의 대표곡 '내가 나에게', '지우개', '댄싱퀸' 등을 국악관현악 연주에 맞춰 노래한다. 전석 1만 원. 문의 062-613-824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남구 봉선동 광주겨자씨교회인근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매물건

토지 690평 감정가 **4,685,000,000**
건물 431평 최저가 **4,685,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점 토지 18452평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140,000,000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도시 토지 2746평 감정가 7,300,000,000 최저가 3,600,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광산구 비야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도로변 토지 94평 평당 395만원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증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야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천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